


장애인과 일터

Vol. 340

2023 AUGUST
KEAD Monthly Magazine

알쏭달쏭, 디지털 세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AUG, Vol.340

알쏭달쏭, 디지털 세상

오늘 몇 도지, 스마트폰 터치로 날씨를 확인합니다. 거기가볼까, 여름 휴양지를 검색하고요. 저녁 뭐 먹지, 배달 앱을 켭니다. 목소리로 에어컨을 켜고 눈으로 잠금 해제하며 귀로 책을 듣는 디지털 세상. 우리는 참으로 신기하고도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8월호는 이러한 알쏭달쏭, 디지털 세상에 관한 생각들을 나눠봅니다.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알쏭달쏭, 디지털 세상
- 04 **생각 더하기**
디지털 세상은 모두에게 기회일까?
- 06 **공감 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휠체어의 역사 알아보기
- 10 **일터 트렌드**
이커머스산업 직무패키지원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공단 덕분에 대통령상 받은 사서 실무사가 되었습니다.”
- 16 **함께하는 일터**
“마음을 두드리는 선율을 연주합니다.”
- 20 **우리는 KEAD**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향을 만들려 왔습니다.”
- 24 **KEAD 포커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알아보기
- 28 **세계는 지금**
일본, 장애인문화예술과 고용을 잇다

공감, 함께하다

- 32 **트렌드 보고서**
건강에 진심인 MZ세대의 운동법
- 34 **배리어프리 여행**
낭만이 있는 이곳, 남이섬과 물레길 킹카누
- 36 **컬처 플러스**
오베라는 남자 Vs 오토라는 남자
- 38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9 **KEAD 톨**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간장애 편
- 41 **KEAD 뉴스**
- 42 **KEAD SNS**

알쏭달쏭, 디지털 세상

격변하는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감성 찾는 이유

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도 없었고요. 10년 전만 해도 배달앱이나 키오스크도 없었지요. 매번 신기술이 발표되고 우리의 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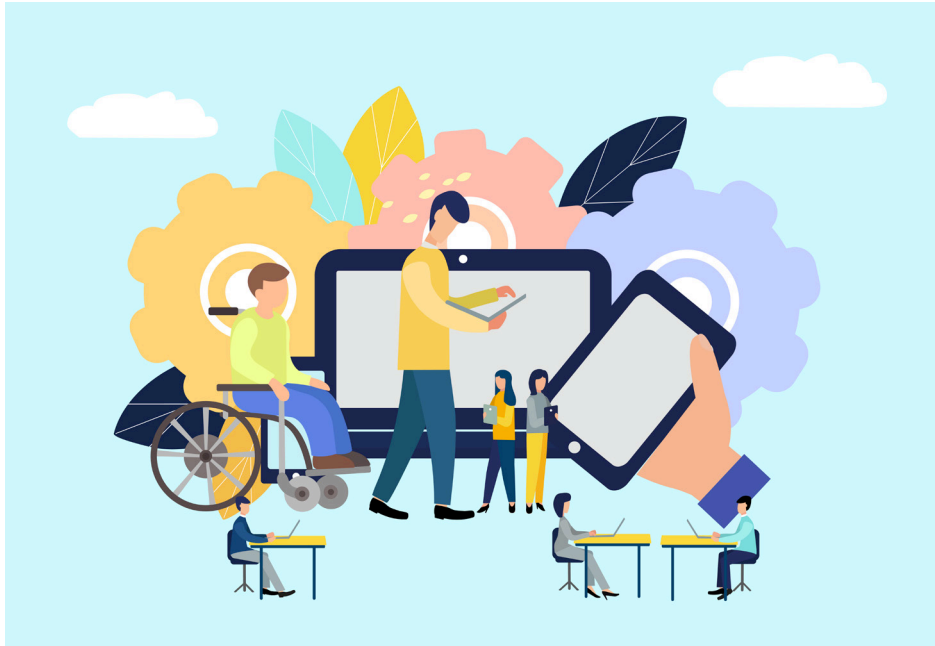
이뿐인가요. 어느새 AI 기술도 발달해 식당이나 공항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짐도 들어줍니다. 뭐든지 꽤나 그럴싸하게 답해주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ChatGPT는 어떻고요. 우리 모두 참으로 신통방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놀라운 디지털 기술들이 등장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득 이런 세상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쏭달쏭 의문이 들지 않나요. 검색을 통해 아주 쉽고 빠르게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루 종일 동영상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중독처럼 빠진다는 것, 손 편지보다는 DM을 선호하고, 함께 시청하기보다는 개인 휴대기기로 혼자 보는 게 편해지는 것. 이토록 편리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서 예전보다 더 많이 피곤하고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래서일까요.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합니다. 옛노래가 다시금 인기를 얻고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하고 낡은 골목 상권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요. 편리하고 빠른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따뜻하고 느린 아날로그 감성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겠지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 둘의 조합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디지털 세상은 모두에게 기회일까? 디지털 약자가 되지 않는 교육이 먼저

글 권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무총장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

1995년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컴퓨터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때는 컴퓨터를 켜고 일일이 명령어를 쳐가면서 화면을 불러오고, 애플리케이션들을 바꾸고자 할 때도 또다시 명령어로 타이핑을 쳐야만 했던 시절이었다. 당시 고가였던 애플 컴퓨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와 비슷하게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가 막 나왔을 때이기도 하다. 윈도우 95의 출시는 그야말로 획기적이었다. 컴퓨터를 켤 때 일일이 타이핑을 칠 필요가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었고 새시대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히 팀장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하루 종일 해준다고 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장에 갔지만 아뿔싸, 오전 교육은 이전의 타이핑 치던 방식을 알려주고 오후 교육에서야 윈도우 95에 대해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팀장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쓸데없이 오전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이전 방식을 왜 가르쳐 주느냐, 윈도우 95는 배울 것도 없이 누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럴 바에 굳이 모여서 집합교육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컴퓨터에 윈도우 95만 깔아주면 되지 않느냐 등등.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물론 아직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림 명령어를 누를 필요 없이 음성 명령만으로도 컴퓨터를 켜고 끌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이전엔 다

양한 파일들을 이메일로 보내고 받고, 또는 USB에 저장해서 보관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쉽고 빠르게 소통한다. 이메일도 예전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파일들 역시 점점 사용량이 줄고 있다. 책상마다 놓여있던 데스크톱 컴퓨터와 큰 모니터가 조직 생산성과 경쟁력의 상징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트북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이처럼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장애인에게 꼭 맞는 디지털 교육을 해주고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드론, 키오스크, 로봇’ 등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우리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무조건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챗 GPT, 코파일럿’ 등등, 우리는 몇 달만 멍하게 있으면 바로 대화에서 뒤처질 정도로 확실한 디지털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이쯤에서 궁금해진다. 장애인에게 디지털 세상은 기회가 될까, 아니면 더 큰 진입장벽이나 장애가 될까. 나는 당연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체장애인이 상체를 활용해 전산 전문직을 맡고, 청각장애인이 문자로 소통하며 시각장애인이 안경에 부착된 앱을 이용해서 근접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세상인가. 하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고 대처한다면 디지털 세상은 또 다른 진입장벽이나 장애로 느껴질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

최근 어느 복지관에 찾아갔다. 그곳에는 장애인 정보화교육반이 있었다. 편마비로 인해 양손 타이핑 훈련이 어려운 교육생들이 있었는데 교실에는 양손 키보드밖에 없었다. 마우스 역시 손에 쉽게 쥘 수 있는 트랙볼마우스가 아니었다. 나는 불편할텐데 왜 이런 상태로 쓰고 있느냐고 교육생에게 물었고, 교육생은 자격증을 따려면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생각했다. 비록 두상이 예쁘지는 않지만, 머리를 쥐고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자격증 조건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복지관에 장애인 교육생들의 개별 환경에 맞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공해달라고 어필했다. 며칠 후, 결국 내가 추천한대로 모든 제품이 바뀌었고, 장애인 교육생들이 장비에 잘 적응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자격증 조건도 장애인에게 맞도록 변경되었다고 했다. 마음이 뿌듯했다. 어느새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근무한 지도 4개월이 지나간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열심히 사는 장애인들을 만난다. 멀리서부터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근로작업장에 와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신의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도전과 노력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말이다. 나는 이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공간과 최고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싶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이분들 중에서 지구를 구할 위인이 반드시 나올 것만 같은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디지털 세상!

스마트폰 배달앱 터치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한다.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은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누군가는 잘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기도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이 전하는 ‘디지털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강지원 부장
감사실 감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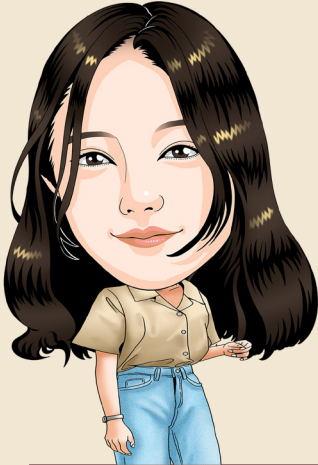
“

디지털 기술 영역의 발달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 감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을 확보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최고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연결하여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업무를 비롯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반대로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사용 능력의 차이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현실 세계와의 단절, 사회적 고립’ 등도 염려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통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보다 더 진심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분들에게 유용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지요. 보조공학기기에 ‘인공지능, AR, VR 기술’이 결합 된다면 시각장애인도 눈앞에 있는 화면을 읽을 수 있고요.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등 기술 발달의 영역은 한계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수 대리
서울지역본부 기업지원부

“

**빠르고 안전한 무인 배송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지역본부 기업지원부에서 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고용관리 비용, 인사,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요.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에 대해 알아보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기능에 가장 놀랐는데요, 비장애인이 데스크톱을 사용하듯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모든 사무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손가락 감각만으로도 문서 작성, 인터넷 서핑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걱정도 되는데요, 개인 시간에 ‘SNS, OTT 드라마’ 등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업체 담당자분들과 연락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게 됩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중 대부분 작은 화면을 보다 보니 안구건조증도 심해지고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많지요.

앞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무인 배송시스템’인데요. 생수, 쌀처럼 무거운 택배를 배달해주는 배송 기사님들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택배 배송과 음식 배달이 활성화된 만큼 ‘무인 배송체계’가 구축돼 모두가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구지역본부 취업지원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직자분들의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음식 배달 앱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사용해서 평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자주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음식점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달 앱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주지요. 또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테이블까지 가져다주는 서빙로봇 ‘딜리플레이트’가 있는데요, 휠체어 사용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줍니다.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는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구인난입니다. 앞으로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는 과연 미래에도 있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일상생활 신체활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머리 감기’입니다. 머리를 감겨주는 로봇이 개발돼 샴푸와 마사지도 해주고, 말려주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경식 주임
대구지역본부 취업지원부

“

**디지털 기술은 장애인분들에게
유용함과 편리함을 가져다줘요**

휠체어의 역사 알아보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휠체어는 휠(Wheel)과 체어(Chair)의 합성어로 4개의 바퀴가 달린 의자를 말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휠체어를 접하지만,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 휠체어의 기능이나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지금부터 '휠체어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글 편집부



휠체어 발명의 원조는 '중환자용 의자'

16세기 귀족 신분인 '제한 러마이트'는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Philip II)'를 위해 휠체어 모양의 의자를 만들었다. 펠리페 2세가 사용했던 의자는 현재의 기술에서 바라보면 일종의 중환자용 의자에 가깝지만, 당시에는 장애인 이 아니라 귀족들과 왕족들의 안락함을 위해 만들어졌다. 펠리페 2세의 아내인 마리 투도르도 이 의자를 사

용했는데, 다리 지지대가 있었을 뿐 바퀴가 달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사용한 의자는 가구 역사에서 혁신적이었다. 특히 의자의 등 부분을 천으로 누비고 경첩이 달린 팔걸이가 있고, 등과 다리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톱니바퀴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의자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1588년 누렘부르크의 ‘발다자르 해커’가 맨 처음으로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만들어 이용했으며, 1655년 장애인이었던 스위스의 시계 제조자 ‘스테판 파프터’는 금속 톱니바퀴가 크랭크를 돌려 추진하는 의자를 제작하기도 했다. 1672년에는 독일의 발명가 ‘에릭 폰 부렌하이머’가 장애로 걸을 수 없었던 어머니를 위해 바퀴 달린 의자를 발명했다. 그러나 그는 브레이크 장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의 의자를 테스트하던 중 추락사했다고 전해진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오늘날 휠체어와 가장 비슷해진다. 영국의 ‘존 조셉 메를린’ 의자가 그것이다. 그가 발명한 휠체어는 주로 중환자용 의자로 쓰였는데, 앞쪽에 바퀴 두 개를 달고 이중 타이어를 씌웠으며 뒤쪽에는 그보다 작은 바퀴를 달았다. 이 의자는 손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추진할 수 있었고, 나무 레버로 작동해 추진력을 얻었다. 이러한 장치는 사용자가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바퀴 의자를 조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9세기, 본격적인 휠체어 개발 시작

휠체어 개발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은 휠체어 대중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당시 남부와 북부 모두에서 많은 지체장애인이 발생했고, 하루 수천 대의 휠체어를 생산해 내는 대형 공장들이 들어섰다. 더불어 영국의 산업혁명 또한 휠체어 개발에 커다란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 당시 오늘날의 전동휠체어를 연상시키는 휠체어가 개발됐는데, 증기기관 강력 모터로 동력을 얻었다. 이처럼 16세기 펠리페 2세의 중환자용 의자부터 휠체어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업화는 1932년 미국의 ‘해리 제닝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친구 ‘헤르베르트 에베레스트’를 위해 휠체어를 연구했다. 관 모양의 강철 구조에 접고 펼 수 있는 형태로 현재의 휠체어 모양을 갖추고 있다.

휠체어는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색이 없는 기존의 형태에서 패션 감각이 뛰어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해변용, 비포장도로용, 스키용, 산악용, 로봇 휠체어뿐만 아니라 기존 전동휠체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기립형 전동 휠체어’까지 등장했다. 현재 이 기립형 휠체어에 대해 찬반 여론이 일기도 했다. 개인이 구매하기에 너무 고가라는 사실과 무겁다는 단점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고가이며 무겁다고 할 지라도 일어서고 싶다는 장애인 개인의 바람도 무시될 수는 없다. 결국에는 양가적인 선택이다.

끝으로, 누군가에게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동 수단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이자 그 이상의 의미이기도 하다. 휠체어가 가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커머스산업 직무패키지원 쿠팡에서 장애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도 가장 호황을 누린 산업은 이커머스 분야다. 대표적인 곳은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후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쿠팡은 오랜 적자 끝에 흑자로 전환했고 매년 매출 최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공단은 이러한 쿠팡의 성장을 일찌감치 주목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이커머스산업 직무패키지원’이라는 직무군을 개발했다.

글 편집부

* 2022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이커머스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의 2023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7조 3,990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올 1분기 국내 유통시장 규모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4% 오른 것과 비교해 급격한 성장세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 2명 중 1명은 쿠팡을 이용한다고 하니, 이곳에 대규모 장애인고용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단은 코로나 시국 초기인 2020년부터 이커머스산업 분야의 비전을 관심 있게 지켜왔다. 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이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이로써 반복 훈련으로 업무 습득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인복합자판기관리원’, ‘다회용보냉백 관리원’ 등이 개발됐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이들을 전문으로 관리해주는 ‘잡매니저’도 함께 배치하는 방안도 구상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물리적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재택근무 형태로 고려했으며,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온라인숍 지원자’, ‘영문전환원’, ‘배송사진모니터링원’ 등의 직무가 개발되었다. 이렇게 개발한 직군들을 총칭하여 ‘이커머스산업 직무패키지원’이라 명명했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

공단이 이커머스산업 분야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직무를 개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체 장애인구와 비교 시 이들 장애인이 더욱 열악한 경제활동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실업률은 1.4%p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0.7%p 높다. 따라서 공단은 여성장애인의 고용증대와 고용유지를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도 실시했다. 경력단절 여성 채용 우대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다수의 직무를 개발한 배경이기도 하다. 사실 쿠팡은 오랜 기간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이었다. 쿠팡 인사담당자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었으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공단은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개발 직군들을 쿠팡 측에 소개하고 정기적으로 쿠팡 인사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해 설득했다. 아울러 일자리 수요가 있는 현업 부서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해 직무개발 과정에 기초가 되는 현업 직무를 상세히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5월 쿠팡에는 이커머스기업 최초로 장애인채용 및 인사운영 전담부서인 ‘포용경영팀(Inclusion Management)’이 설립됐다. 이에 공단은 쿠팡과 유기적으로 장애인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고 장애인고용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적극 지원했다.

쿠팡,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이자 모범사례로!

공단은 먼저 지사를 통해 취업 지원자 모집하고 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운영했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지원자의 면접 전, 면접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온라인교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의 맞춤형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소수 인원으로 운영했으며,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했다.

특히 공단이 신경을 쓴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즐겁게 일하는 일터환경 만들기’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현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애특성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당사자 의견을 고려해 직무 전환 및 재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단과 쿠팡의 노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쿠팡은 2019년말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1.23%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2021년말 2.56%로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기업맞춤형 직무개발 및 장애인고용 확대로 쿠팡의 포용경영팀장은 ‘2022 장애인고용촉진 정부포상’ 업무유공자로 선정되어 공로 및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쿠팡의 사례는 이커머스산업 직무패키지를 동종 사업체에 본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었다. 각 기업별 맞춤형으로 세부직무 및 근무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장애인 일자리 전망은 매우 밝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공단 덕분에 대통령상 받은 사서 실무사가 되었습니다.”

강제길 인천부원초등학교 사서 실무사

2015년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에서 삼형제의 아빠로 명성을 크게 얻은 강제길 사서 실무사. 이제는 정부 포상인 ‘산업포장’을 받은 직업인으로서, 12년간 우직하게 걸어온 걸음과 커리어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굳은 다짐을 보이는 그를 인천부원초등학교 도서실에서 만나고 왔다.

글 편집부 / 사진 김덕향



지난 4월,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천부원초등학교 강제길 사서 실무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부원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사서 실무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제길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희망 드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12년 차로 오늘 인터뷰가 저에겐 무엇보다 뜻깊게 느껴집니다. 저는 태어나서 100일도 전에 황달로 인한 고열이 41도까지 올라갔었고, 급히 병원에 갔지만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장애인고용 촉진대회’에서 산업포장을 받으셨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감흥이 어떠셨는지요?

처음엔 제가 받는 상의 무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국가산업발전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 이틀 전에 공단 선생님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교장선생님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정부 포상인 걸 알았고, 이내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부모님은 시상식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강씨 가문의 영광’이라고 감격해하셨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로 알고 일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서 실무사’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일과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사서 실무사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 대출, 반납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하고 반납한 책을 비롯하여 신간 등의 책들을 분류해서 서고 정리도 하고 도서관 내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학기 중에는 정오에 출근해서 4시 반 퇴근,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반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강제길 사서 실무사가 진지한 모습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사서 실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 학교엔 도서실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곳은 '생각채움터'라고 불리는 곳으로 저학년 학생들이 와서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 많습니다. 처음에 일할 때는 학생들이 저를 무서워할 때도 있었어요. 낯선 모습이니깐요. 그런데 이제는 '도서관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편하게 대하곤 합니다. 하루는 퇴근길에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가웃하다가 이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라는 것어요. 도서관에서 꾸준히 책을 보며 저와 인사했던 학생들이 '어 느덧 저렇게 자랐구나', 그리고 '날 기억해주는구나' 하는 애틋한 마음과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12년을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나요?

처음에는 손잡이 바코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간편하게 바코드를 대기만 하면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수기로 대출 반납 정보를 기재했었던데요. 지금은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하니 편리하기도 하고 업무 처리에 시간이 반 이상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달라진 건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처음엔 책등 하단에 있는 분류표를 구분하지 못해서가를 많이 헤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학생들이 말하는 책이 어느 책장 몇 칸에 있는지까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강제길 사서 실무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천부원초등학교 도서관의 환경은 어떤가요? 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과의 관계와 일상, 회사 생활이 궁금합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늦고, 빠르는데 많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높으셔서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주려고도, 덜 해주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동등한 업무 파트너로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번듯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도서관 선생님'으로 대해준다는 점에서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흐뭇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제길 사서 실무사님의 앞으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곳에서의 제 정년은 2035년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무탈히 학교생활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후에도 공공기관이나 다른 학교를 향한 사서 실무사 도전도 게을리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싶어요. 작년에 왼쪽 복숭아뼈 아래 통증이 있어 부주상골증후군을 앓았었는데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고, 올해도 한 번 더 수술 계획이 있습니다. 아내가 제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병치레가 잦은 편인데요,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이 올해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렸을 때 인천지사의 최민호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차장님이 되셨더군요. 덕분에 12년을 근속하는 직장도 얻고, 이를 인정해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어찌면 상을 받을 분은 제가 아니라 최민호 차장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모든 직원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바로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과 함께 제 커리어를 지키는 마음을 담아 열심히 사서 실무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선율을 연주합니다.”

네오플, 음악으로 일자리 창출에서 인식개선까지

지난 6월 28일, 판교에 자리한 넥슨 사옥에서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다.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OST에서 드보르자크의 첼로협주곡, 카르멘 서곡까지.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창단한 최초의 장애인 연주단은 그렇게 말보다 강한 음악의 힘으로 모두를 감동시켰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다함께 미소를 짓고 있는 ‘양상블 힐’ 첼로 연주단원들



게임회사 최초의 장애인 연주단 창단

‘앙상블 힐(Ensemble Heal)’은 게임사 최초의 장애인 연주단이다. 중증 발달장애인 연주가를 직접 고용한 기업은 바로 네오플. 국내 최대 규모 게임회사인 넥슨컴퍼니의 자회사로 주요 출시 게임으로는 ‘던전앤파이터’와 ‘사이퍼즈’가 있으며,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게임이 언뜻 장애인 일자리와 인연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넥슨컴퍼니는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의료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친화 사업을 선보여 왔다. 2011년에는 게임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넥슨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앙상블 힐 창단식 현장에 참여한 윤명진 네오플 대표는 “네오플의 구성원이자 넥슨컴퍼니 가족이 된 ‘앙상블 힐’ 연주단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단원들의 아름다운 연주가 우리 사회에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사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연주단’이었을까? 네오플의 처음 고민은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으로 시작한 변화의 움직임은 점차 다양한 장애인 구성원과 함께하며 진화하기 시작했다. ‘단순 고용의 영역을 벗어나 상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음악과 미술, 기술이 한데 모이는 게임 분야이기에 보다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말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다.



양상블 힐,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으로

양상블 힐의 역사는 8년 전 최영순 첼리스트의 재능기부로 열린 첼로 레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섯 명으로 시작한 양상블은 현재 세 파트로 확장되어 7명의 연주자, 1명의 피아노 반주자로 구성됐다. 모두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시절부터 연주를 시작해 대부분 15년 이상 숙련된 첼리스트들이다.

첼로가 단짝이자 삶의 동반자인 이들이지만, 직업 연주자로서 길을 걷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아직까지는 많은 장애인 일자리가 각자의 재능보다는 장애 특성에 맞춰 개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양상블 힐의 박영미 씨는 네오플과 만난 순간, 연주자로서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단원들의 지난 시간을 보상받은 기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던 네오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연주단 발굴을 시작했고, 그렇게 양상블 힐과 인연이 닿게 된 것. 본격적인 채용 전 네오플은 연주단 채용을 위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단원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기본 교육과 합주 연습을 진행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연주단 8명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다

연주단원 모두 조직에 속하는 상황이 처음이었고 생소한 맞춤훈련교육을 받기까지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은 네오플이었다. 함께 일하기 전 단원과 그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았고, 안정적인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 덕분일까?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근로계약에서 창단식까지, 분주하게 흐른 시간을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 연주단은 하루 8시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합주에 필요한 개인 파트를 연습하고, 주 2회는 서초구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합주를 진행했다. 마침내 열린 창단식 날, 새로운 가족을 맞게 된 네오플을 포함한 넥스컴퍼니 임직원의 반응은 뜨거웠다. 바쁜 업무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창단식에 참여한 직원들 덕분에 홀 내부에 자리가 없었을 정도였다.

양상블 힐은 장애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던파 페스티벌 등 내부 기업 행사는 물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끝없는 모험을 펼치는 던전앤파이터의 주인공들 처럼, 단원들 역시 음악의 힘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이 여정의 끝에 어떤 사건과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 네오플과 양상블 힐 단원들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의 순간을 만날 수 있을 테다. 이들이 선보일 가슴 벅찬 선율에 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진지한 표정으로 첼로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단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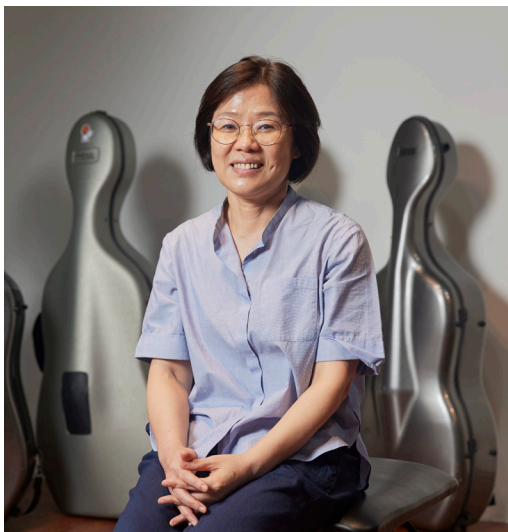
미니 인터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황중완 파트장

처음 맞춤형훈련센터에서 단원들을 만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저에게 반갑게 먼저 다가가 주셨는데요.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소통이 어려웠던 사람은 오히려 저였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장애인고용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일단 부딪혀보라는 조언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스스로 생각했던 한계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으로 시작된 고민의 결실이 이제는 단순 고용영역의 한계를 벗어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로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오플의 가족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박영미 씨(김석영 단원 부모)

지난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라는 드라마를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났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않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있었지만 잘 참고 견뎌내 이렇게 네오플 가족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앙상블 힐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연주를 이어나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네오플에서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단원 모두 직업 연주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가는 네오플에서 제작하는 게임 OST 녹음에도 참여해보고 싶고요. 언더 페스티벌 등 네오플을 알리는 다양한 자리에서 음악의 뜨거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향을 만들러 왔습니다.”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김혜지 교사, 정진실 주임, 김은서 주임

약속 시간이 되자 저 먼 복도 끝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공방 문이 열리고, 등장한 세 사람에게선 어떤 벽도 허물어 버릴 것 같은 정겨움과 해사함이 묻어났다.

직업훈련을 담당하며 최전선에서 장애인을 만나고 있는 세 사람.

이들의 오늘 목표는 본인들을 닮은 은은한 향기를 간직할 오브제를 만드는 일이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석고방향제를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은 김은서, 정진실 주임과 김혜지 교사(왼쪽부터)

상대의 노력을 아는 서로의 인식처들

오늘 세 사람의 체험은 석고에 향을 입혀 공간을 향기롭게 만드는 ‘석고방향제’를 만드는 일. 석고를 넣어서 굳힐 캐릭터 몰딩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몰딩은 평면과 입체, 색상이 캐릭터의 수만큼이나 다양해 고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 이 고양이 주임님 닮았다!”, “교사님이랑 찰떡인데요?” 하며 서로에게 어울리는 몰딩을 추천했다. 요즘 운동에 푹 빠져 있는 김은서 주임은 덤벨을 들고 있는 곰 캐릭터를, 정진실 주임과 김혜지 교사는 귀여움에 이끌려 입체적인 토끼와 곰 몰딩을 골라 자리로 돌아왔다.

석고방향제의 핵심인 향을 고르는 작업에선 주저 없이 평소에 좋아했던 향을 척척 고르기 시작했다. 김혜지 교사는 상큼한 프리지어 향을, 김은서 주임은 단정한 코튼 향을, 정진실 주임은 차분한 우디 향을 선택했다. 선택한 향들을 서로 나눠 맡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세 사람. 서로의 인상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향을 선택했다는 신호였다.

“김은서 주임님은 직업 훈련 준비 과정과 입학 상담을 담당하시고, 정진실 주임님은 일배움 과정 사업을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훈련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하다 보니 셋이 유기적으로 훈련생들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비공식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우리 센터에서 유일한 미혼 3인이랍니다.”

세 사람이 친해진 계기를 김혜지 교사가 설명했다. 센터에 들어온 훈련생들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서로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인 셈이다. 세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훈련생들 이야기를 하는 건 징검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업무의 연장선이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애환을 이해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렵지만 보람 있고, 자부심을 가지는 일

올리브 리퀴르와 향료를 섞어 향료 베이스를 완성했다면, 석고가루와 물을 넣어 석고 반죽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석고가루가 굳기 전에 신속하게 섞어 몰드에 부을 것!’ 계량을 마친 세 사람은 이 유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 긴장한 탓인지 향료를 더 넣는 실수를 하거나, 석고 가루가 부족해 몰드를 바꿔야 하는 변수가 생기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유연하게 넘어가던 세 사람. 하물며 사람을 훈련하고 취업을 돕는 업무에서도 이런 유연성은 늘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간혹 훈련생이 말한 장애에 대한 정보 혹은 개인에 대한 정보와 세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괴리가 오는 순간들이 있다. 긴장하고 다시 팩트를 챙길 때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조심스레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가장 보람된 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하는 그 자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자립하기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누구보다 바라기 때문에 업무적 어려움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부분에 해당한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최근 세 사람이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중복발달장애인 특별과정’을 꼽았다. 중복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에 비해 2~3배 정도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중복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분야 소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김은서 주임은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는 게 우리 공단에서 일하는 자부심이라 힘줘 말했다.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단에 입사하고 나서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리천장을 깨보려고 노력하는 장애인을 많이 만났어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자부심을 함께 가진, 동료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 교육받는 입장으로

몰드에서 석고 반죽을 분리하자 캐릭터 석고모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티끌도 섞이지 않은 새하얀 석고모형에 감탄하다가 급히 채색 작업에 돌입하는 세 사람. 이미 공방 선생님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귀뽀를 해줬기 때문에 붓을 잡는 손이 사뭇 비장하다. 가장 마지막 작업이지만 자칫 완성도를 올릴 수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채색 작업. 세 사람의 긴장감으로 공방이 사뭇 조용해졌다. 정진실 주임은 떨리는 붓끝에 정신을 집중하다가 이내 훈련생들의 마음을 가늠해본다.

“왜 우리 훈련생들이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떨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작은 석고 모형에 채색하는 것도 떨리는데 훈련생들은 새로운 것을 습득하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얼마나 떨려했는지 그 마음을 새삼 알 것 같네요.”

직업훈련 준비과정에서 사칙연산 능력이 없는 훈련생을 수업시간 이후 1시간씩 더 교육한 정진실 주임. 한 달이 지나고 정확히 사칙연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벽참을 느꼈다고 한다. 직업생활에서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한 계단 올라선 그 훈련생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흐뭇함으로 며칠이 행복했다고 했다. 김혜지 교사도 김은서 주임도 채색을 중단하고 금방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훈련생에 대한 동기화가 잘 되는 세 사람이 같은 센터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축복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완성된 캐릭터 석고방향제를 이런저런 각도로 사진 찍으며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세 사람. 석고방향제에서 나는 향은 길면 한 달이 간다고 하는데 세 사람이 내뿜는 은은한 향은 앞으로도 쪽 오래오래 퍼질 것만 같다. 서로의 안식처이자 위로이자 웃음으로 말이다.



귀여운 캐릭터들로 완성된 세 사람의 석고방향제

🎙️ 체험 소감 한마디



/ 김혜지 교사 /

오늘 체험을 하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수업 소재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직업병인지. (웃음)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향기 나는 오브제를 하나씩 선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든 건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고요, 가장 애착 가는 토끼 석고방향제는 집에 두려고요. 향기로워질 집이 기대됩니다.

"향기로워질 집이 기대됩니다."



/ 정진실 주임 /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훈련생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주 업무예요. 가끔 훈련생들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봐요. 근데 오늘 저도 선생님 설명이 채 끝나기 전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훈련생들의 마음을 심분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석고방향제처럼 훈련생들에게 은은한 향으로 남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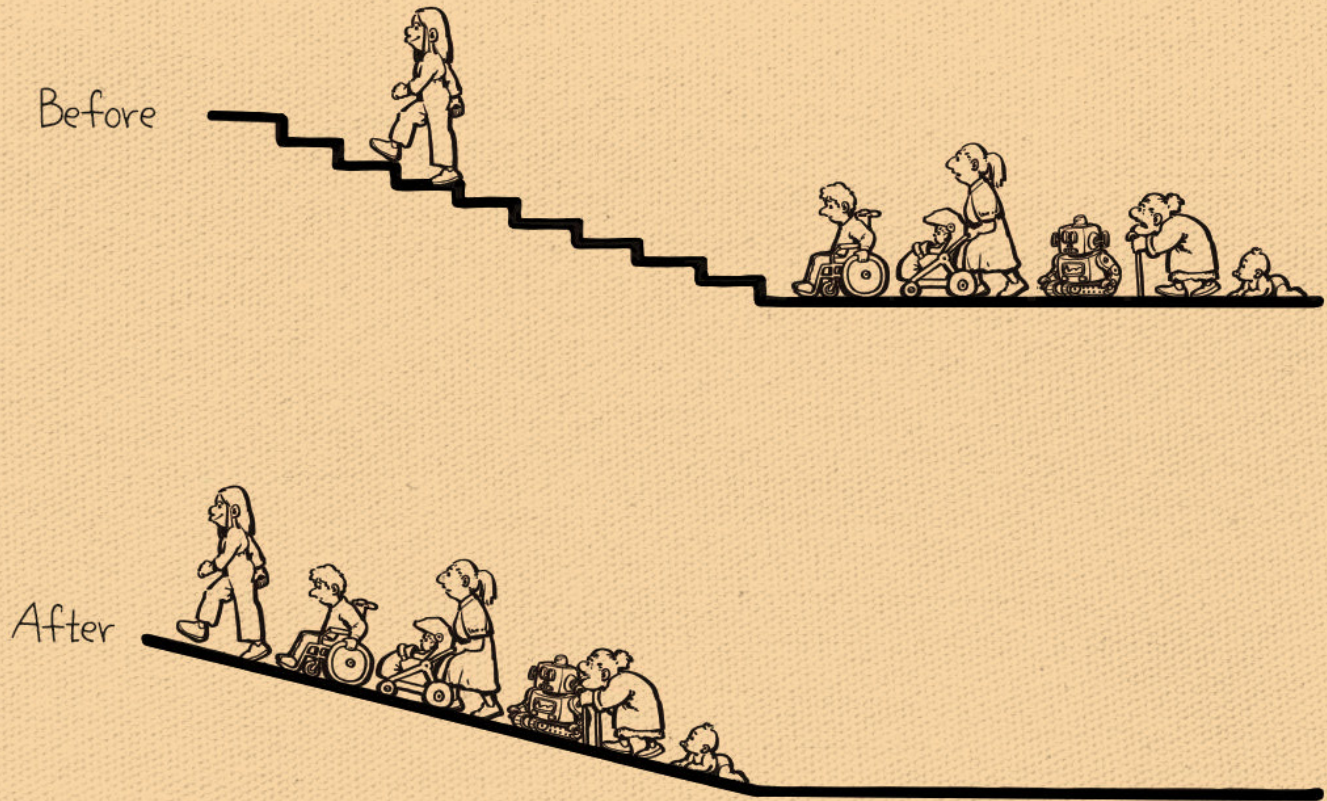
"훈련생의 떨림을 이해하는 하루였어요."



/ 김은서 주임 /

오늘 체험도 그렇고 우리 업무도 그렇고 뭐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함께 만든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라 공유할 추억 하나 늘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아무쪼록 세 사람 모두 올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길, 파이팅!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센터 사업에 많은 지원해주시는 대전지역본부 취업지원부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뜻깊은 체험이었어요."



(Barrier Free) BF는 소수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리플릿, '문턱 없는 공간' 편

배리어프리 디자인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알아보기

한 번쯤 들어봤을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문자 그대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뜻한다.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Barrier Free Design'이란 건축물과 주택에서 시설 접근 등에 장애요소를 제거해 고령자와 장애인 및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기준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개념과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글 편집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¹⁾’의 개념은 이렇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최대한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1974년 ‘국제연합(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협의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후부터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생활환경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왔고,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장애인시설 설치 위주로 환경을 조성했다. 하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인 편의시설 없이도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포인트다. 설계 시부터 장애인을 시설이용자의 일부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장애인시설을 만들지 않는 디자인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건물을 설계할 때 비장애인용 계단 입구와 장애인용 경사로를 따로 구성했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은 처음부터 계단의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하여 이용자 모두가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개념은 그 적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건축 관련 용어로 처음 등장한 용어이지만 이제는 사회제도, 문화정보, 의식·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통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든 가구나 제품디자인 등도 포함하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환경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에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부령으로 운영하고 건축물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래에서 BF인증 제도의 법적근거부터 인증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자.

▷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국토교통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 관하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 강병근

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 법률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물(건축물, 공원, 여객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인증대상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에 따른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 인증종류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며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설계단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증은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단계) 신청할 수 있다.

▷ 인증기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되며, 인증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3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사업(인증대상 : 건축물-개별시설)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 인증심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후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한다.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는 대상시설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인증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증등급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나뉘며 예비인증은 예비인증서를, 본인증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한다. '예비인증'은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인증 시에는 현장 심사를 한다.

▷ 예비인증(설계단계)

제출서류 작성 → 예비인증 신청서 제출 → 예비인증 심사단 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예비인증서 교부

▷ 본인증(준공단계)

제출서류 작성 → 본인증 신청서 제출 → 인증심사단 현장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본인증서 및 명판 교부

Q&A

Q '신축'이란 무엇인가요?

A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인증 의무대상 시설은 어디인가요?

A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의 모든 건축물이 인증 대상에 포함합니다.

Q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처리기간은 신청이 접수된 일부부터 약 40일 이내입니다. 단, 제출된 서류의 보완기간 및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인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예시

일본, 장애인문화예술과 고용을 잇다

(주)AKI Life Stage, HANA 아트센터

세계는 지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을 포함해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일본은 일찍부터 장애인문화예술과 고용을 연결해 왔다.

지금부터 일본의 장애인문화예술 현장을 살펴본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발달장애인 화가 아키의 다양한 그림들 / 사진. life-aki.com

일본의 발달장애인 화가, 아키 이야기

먼저 일본 유명 발달장애인 화가, '아키(AKI)'의 이야기다. 그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며 35세 남성이다. 그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방안에서 마음대로 아무렇게

게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줬다. 당연히 다른 누구로부터 그림을 배우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는 건축용 도료로 색을 입히기 시작했고 유난히 동물을 많이 그리게 되면서 독특한 화풍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가 '사사가세 다이치'를 만난 건 그때였다. 다이치는 지역유지 중 한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아키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동물 그림에 매료됐다. 다이치는 아키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자비를 들여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그 후 아키는 다이치의 도움으로 오사카 도심화랑에서 개인 전시회를 개최했고, 이때부터 명성을 얻게 됐다. 'AKI 창조환경 지킴이 작업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화가가 좋아하는 동물이 살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이자, 아키의 작업공간이기도 하다. 일약 발달장애인 화가의 환경보호 운동으로 이어지는 통섭은 묘하게 '장애인과 환경보호'라는 협업으로 사회운동의 한 축이 되었다. 국회의원, 지역사회의 관심은 폭발적이었고 지금은 '주식회사 AKI Life Stage'가 설립됐다. 아키의 작품은 동물 환경보호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각종 굿즈가 제작돼 판매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마더포레스트' 금상 수상, 일본·스페인 교류 친선 명예 작가로도 활약 중이다.

이외에도 일본 발달장애인 작가의 성공 이야기는 부지기수이다. 그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먼저 장애인 당사자의 열정과 의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지지와 협력도 필수다. 아키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전적인 지원은 성공의 기본요소이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가족을 믿고 밀어주는 자세야말로, 발달장애인 작가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던 중 구원자처럼 유력 후원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의 헌신적 프로모션은 각종 미디어, 정치가의 입을 통해 전파되고 작품은 세상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창작활동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이들의 이름을 건 아틀리에, 창작작업소 등이 생겨나며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은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민들레의 집 부설기관, 'HANA 아트센터'의 활약

아키의 (주)AKI Life Stage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발전했다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을 이끌어온 기관이 있다. '단포포노이에', 일명 민들레의 집으로 불리는 부설기관 '하나아트센터(HANA Art Center)'가 바로 그곳이다.

하나아트센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민들레의 집을 살펴보자. 1970년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두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장애인 가정의 어려운 상황은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된다. 아이를 살해한 잘못이 어머니에게 있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방조한 사회에 있다며 어머니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면운동이 촉발된다. 당시 신문기자로 재직하고 있던 '하리마 야스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취재하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다. 이후 1973년, 그는 장애인 부모들과 예술 활동을 하는 공동생활가정 '민들레의 집'을 설립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민들레의 집은 1995년 장애인예술 연대 '에이블아트제팬'을 설립했으며, 2005년에 지금의 **하나아트센터¹⁾**를 부설기관으로 개관했다. 또한 2007년, 센터에서 장애인 예술인의 작품을 상품화 작업하는 '에이블아트컴퍼니'를 설립했다. 2010년에는 '굿잡센터'를 설립하는데 이르렀다. 처음 민들레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은 단조로웠지만, 지금은 모두 창작이다. 종이에 점을 찍거나 반복해서 붙이는 것을 좋아했던 어느 이용인에게 색종이는 예술의 시작이었다. 더 나아가 점을 찍는 작업은 섬유제품에 멋을 내는 디자이너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 위에 바느질로 글씨를 쓰게 되고, 그 작품은 곧 상품이 되는 경험을 얻었다. 50년 동안 민들레의 집과 하나아트센터, 굿잡센터 등은 돌봄과 예술의 공간으로 발전했으며 수익을 내는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고용의 공간이 됐다. 나라현 나라시의 지명인 '가바시마, 시타자가기시'는 일본 전역에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을 불붙인 성지로 부상했다.

장애인문화예술을 증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여기에서 핵심은 이렇다. 일본 장애인문화예술과 고용창출은 개인 그리고 민간시설에서 자생하고 숙성됐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민간 차원에서 출발한 (주)AKI Life Stage와 하나아트센터의 노력이 사회 곳곳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이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일자리, 고용창출, 수익, 소득 등을 고민하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방안을 찾게 됐다.

이때야 비로소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추진법'이 제정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차 3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직업으로, 소득으로, 수익으로 이어져 경제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법률과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아래의 도표는 그러한 이행체계를 구조화한 것이다.

2023년부터 시작하는 2차 3개년 계획은 장애인문화예술 인재를 개발하고 이들의 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 시설단체 등 국가사회가 어떻게 연계를 강화할 것인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장애인과 고용), 문화청(문화행정)이 서로 면밀하게 연계된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기관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를 일

1) 'HANA'는 일본어로 '꽃'이라는 의미로 하나아트센터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꽃을 피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꽃에 빛을 발하고자 붙여진 이름이다.



본 전국 도도부현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센터는 주로 문화예술 활동을 운영하는 장애인 기관, 시설, 업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문화예술인이 아티스트의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소비자들과 연결되고 판매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사회 민간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조화롭게 이어져 정책의 선순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단순한 창작을 넘어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야

최근 우리나라도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위 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로는 창작보다는 비즈니스 플랫폼, 즉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엽서, 기업체 ESG 홍보디자인, 브로슈어 삽화 등 다양한 굿즈를 기획하고 있다. 하나아트센터에 고용된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예술인의 월급은 10,000엔(10만 원) 정도이다. 물론 작품 판매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가치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술가, 미술 전공 대학생 등의 다양한 예술 지원을 받고 있다. 하나아트센터의 관계자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지지해주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 셋째, 하나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각 기관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쿄에 거점을 둔 ‘에이블아트재팬²⁾과 함께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에이블아트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세미나, 전시회 개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장애인문화예술과 고용 확대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본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나 일본의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공교롭게도 관련 법령의 제정과 공공기관의 지원이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다. 그러나 하나아트센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50년 동안 쌓아온 민간 전문기관 활동을 토대로 법률적 지원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법을 만들고 초기 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개입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은 결정적 차이로 비친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누림 Art&Work³⁾가 그것이다.

차이는 차이일 뿐 어떤 과정이 훗날 장애인문화예술 고용에 이바지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세계는 지금,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창작을 넘어서 어떻게 일자리, 고용, 소득 등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에이블아트재팬’ 역시 민들레의 집이 도쿄에 설립한 장애인문화예술 거점기관이다.

3)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화가 창작지원 및 대여 지원사업’을 말한다.

건강에 진심인 MZ세대의 운동법 ‘오운완’을 아세요?

평일 저녁이 되면 서울 광화문 인근은 MZ세대의 러닝 코스로 변한다. 코스 곳곳에는 이들이 뛰는 모습을 전문가용 카메라에 담은 사진사도 자리 잡고 있다. 러닝을 마친 이들은 자기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 바쁘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글 편집부



‘노오력’이 아닌 놀이처럼 재밌고 즐겁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건강 트렌드가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죄책감’이었다. ‘길티 플래저(Guilty Pleasure)’나 ‘치팅 데이(Cheating Day)’가 괜히 유행했던 게 아니다. 이제는 엔도르핀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같은 표현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헬시 플래저는 김난도 교수(소비자학)가 이끄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펴낸 책 <2022 트렌드 코리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 ‘노오력’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데는 고통이 뒤따랐다. 그러나 MZ세대는 운동을 재미있게 즐기고, 운동 성과를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건강 관리를 ‘놀이’로 만들어 버렸다.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면 ‘#오운완’이 붙은 게시물은 600만여 개, ‘#운동하는남자’

1,100만여 개, '#운동하는여자'는 1,800만여 개가 나온다.

운동 트렌드도 달라졌다. '덤벨(Dumbbell) 이코노미'라는 표현처럼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운동은 곧 헬스(피트니스)였다. 이제는 테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BC카드에서 헬스케어 분야 카드 결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테니스 관련 지출은 2019년과 비교할 때 4.4배가 늘었다. '골린이(골프+어린이)' 열풍을 불러일으킨 골프(1.6배)와 비교해도 게임이 되지 않는다. 테니스는 골프보다 돈과 시간이 모두 적게 든다. 그러면서 옷도 예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추구

TV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영향 등으로 여성 축구 인구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이미 축구 관련 매출이 3배 늘었는데도 주요 브랜드 축구화나 풋살화는 230~250mm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나이키와 푸마 등은 여성 전용 유니폼과 축구화를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운동복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원래 운동복(트레이닝복)은 집에서 입는 옷이었다. 이제는 '웍슬레저' 차림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Work)과 레저(Leisure)를 합친 웍슬레저는 운동복처럼 편하지만, 오피스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옷을 뜻한다. 요가할 때는 레깅스처럼 출근할 때는 슬랙스처럼 활용할 수 있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걷기(Walking)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는 '워런치족(걷기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워런치족은 먹을거리 시장도 바꿔놓았다. 당(糖) 함량을 최소화한 '제로' 음료와 채식 위주의 '비건' 식품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건 '프로틴(단백질)' 제품이다. 비쩍 마르기만 한 체형보다 근육이 있는 몸매를 선호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헬스장에서나 볼 수 있던 프로틴 제품을 찾는 여성 소비자도 늘었다. 특히 프로틴 음료는 식사에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간편하고 빠르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제로 음료 모델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 동아오츠카 제공



롯데푸드 파스퇴르 이지프로틴 3종(초코, 시리얼, 저당 초코). 쿠팡 제공

기성세대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면서 참고 참았다. 그러나 MZ세대는 '어다행다(어차피 다이어트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하자)'라면서 소소한 성취와 재미로 무장한,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삶의 의미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건강 열풍이 반갑다.

낭만이 있는 이곳, 남이섬과 물레길 킹카누 자연과 레저를 모두 즐기다

나무들이 푸르르게 우거지고 햇살이 짙한 여름날이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거닐며 자연을 만끽하기 좋은 춘천의 남이섬. 휠체어에 탄 채로 킹카누에 탑승해 물 가까이서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춘천으로 떠나보자.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질은 녹음으로 청량함이 느껴지는 메타세콰이어 길의 모습

푸르른 메타세콰이어길이 펼쳐지는 곳

남이섬은 원래는 홍수 때만 섬이 되었지만, 1944년 청평댐을 건설하면서 북한강 수위가 상승했고 이후로는 완전한 섬이 되었다고 한다. 8월의 남이섬은 곳곳이 푸르른 색이라 어딜 봐도 눈이 편안해서 힐링하기에 좋다. 한류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그중 조명이 매달린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가장 아기자기하고 예쁜 모습이다. 조명 아래서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이 곳곳의 눈에 띄기도 한다. 드라마에서 남녀주인공이 눈사람을 만들며 첫 키스를 나누었던 곳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인증사진을 남겨본다. 섬 곳곳을 누비다 보면 청설모, 다람쥐, 거위, 오리, 토끼, 공작, 까막딱따구리 등 다양한 동물을 만나 볼 수 있다. 타조는 우리에게 있지만 대부분은 남이섬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동물 친구들을 찾아보는 것도 남이섬 여행의 묘미이다.

편리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남이섬

남이섬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열린 관광지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편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이섬을 출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배를 타는 방법이 가장 쉽다. 배가 선착장까지 경사로로 이어져 휠체어로 탑승하기에 어렵지 않고 내부도 넓은 편이어서 휠체어 여러 대가 들어가도 비좁지 않다. 또 배를 타고 가며 보는 북한강 풍경이 시원하다.

남이섬 내부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고 내부의 여러 부대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해 두어 좋다. 춘천에 왔으니 닭갈비를 먹어봐야 하지 않겠나. 남이섬 내부에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여행 중 잠시 쉬어가기 좋은 카페도 마련되어 있으니 편하게 식도락여행도 즐겨보자.

휠체어로도 문제없는, 의암호 ‘물레길 킹카누’

춘천 의암호에는 휠체어로도 탈 수 있는 카누가 있다. 바로 ‘킹카누’! 킹카누는 안전하게 멀리까지 카누 탐방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캐나다인 카누 체험이다. 킹카누는 수동휠체어 이용자라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선착장에서 카누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휠체어 탑승가능 카누와 진입로, 장애인 화장실 및 축지·음성안내판 등 누구나 카누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었다. 물과 거의 맞닿는 거리에서 두둥실 호수를 떠다니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카누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노를 저으며 의암호의 명소인 의암8경을 감상해 보자.

남이섬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대인 13,000원, 중학생~고등학생(학생증 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본인)국가 유공자증 소지자 본인 70세 이상 10,000원, 소인(36개월~초등학생) 7,000원(선박 운항료 포함금액)
- ※ 무료입장 : 36개월 미만의 부모동반 유아
- * 장애인 주차구역 있음

킹카누 나루터

<https://blog.naver.com/cavinp>

- *연중무휴
- *이용시간: 09:00~19:00 (단체는 홈페이지 예약신청 필수)
※기상에 따른 운영 변동사항이 잦아 문의 필수
- *이용요금: 성인 20,000원, 어린이 10,000원(코스별 요금 다양, 하중도 30,000원)
- *유아 구명조끼 있음

오베라는 남자 Vs 오토라는 남자 -영화 ‘오베라는 남자’와 ‘오토라는 남자’

영화 ‘오베라는 남자’(2016)는 원작인 프레드릭 배크만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오토라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었다.
지금부터 오베라는 남자와 오토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글. 차미경 칼럼니스트



스웨덴 영화 ‘오베라는 남자’는 아내를 잃은 괴팍하고도 다정한 노인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장애는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시련일까

‘오베라는 남자’와 ‘오토라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달라졌지만(물론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조금씩 다르다) 전자는 스웨덴 영화이고 후자는 미국 영화이다. 두 영화는 배경만 다를 뿐 두 작품 모두 아내를 잃은 괴팍한 노인이 아내를 따라가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매번 이웃 때문에 실패하는 원작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간다. 그러나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이던 오베라는 남자와 오토라는 남자의 결정적 다른 점이 있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선 오베라는 남자를 보자.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그의 아내 소피. 그녀의 직업은 학교 교사였고 장애인이

됐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어떤 학교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편의시설이 없는 학교에서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였다. 일반 학교로 재취업이 어려움을 알게 된 소피는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급의 교사로 지원한다. 그러나 그 학교마저 편의시설 부재를 이유로 그녀를 거부한다. 화가 난 오베는 곧바로 학교로 달려가 밤새도록 학교 계단에 나무 경사로를 만들기 시작한다. 결국 소피는 오베가 만든 경사로 덕분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폭우를 무릅쓰고 아내를 위해 밤새 홀로 나무 경사로를 놓는 오베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주는 감동이 사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를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는 교사를 위해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할 책임은 장애 당사자인 소피나 그의 남편 오베가 아니라 그 학교에 있다. 한 개인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회의 직무유기를 통감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죽을 만큼 버텨야 해.” 자신을 거부하는 학교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베의 아내 소피가 한 말이다. 오베와 그녀가 살아야 했던 시절은 그렇게 죽을 만큼 버티며 살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들게 혼자서만 버텨내야 하는 세상이라면 더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닐까.

오토의 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그럼 오토라는 남자는 어떨까. 오토라는 남자는 장애가 있는 아내를 위해 오베와는 좀 다른 싸움을 한다. 오베는 아내를 위해 학교 계단에 나무로 경사로를 놓느라 폭우 속에서 혼자서 애를 쓰지만, 오토라는 남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지역사회 모든 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마을에 콘도를 새로 짓고 인도를 새로 만드는 재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설계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 일인데도 휠체어를 탄 사람은 쉽게 무시되는 현실을 오토는 목도하게 된다. 휠체어 탄 사람을 그저 ‘그런 사람들’로 목살해 버리며, ‘나중에’라는 핑계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손쉽게 배제해 버리는 지역사회에 대해 오토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건설사, 부동산회사, 그리고 안전 점검을 무시해 아내의 사고를 유발한 버스회사와 버스기사와도 오토는 끝까지 싸워 보려고 한다. 그러나 아내 쓰냐가 말리는 바람에 투쟁을 계속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토의 대응은 오베와는 다른 것이었다. 오베라는 남자는 단지 아내의 학교만 바꿀 수 있었지만, 오토라는 남자의 투쟁은 그가 사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었을지 모른다. 단지 몇 장면에 그치는 작은 차이 같지만 오베라는 남자는 장애를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시련이나 역경으로 받아들였고, 오토라는 남자는 장애를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로 보았다.

장애인도 함께 살자고, 장애인도 자유로이 이동하고 일하고 싶다고, 아직도 목이 터지도록 외쳐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이제 우리도 오토처럼 좀 더 적극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더욱더 절실히.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식 #카페 #평화

맑은 하늘 아래 도심을 누비다가 장충동에 위치한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유럽 스타일의 고요한 분위기가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공간이었어요. 야외 테라스가 마련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햇살을 받으며 맛있는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 다. 이곳의 외관은 사진을 찍기에도 이상적인 곳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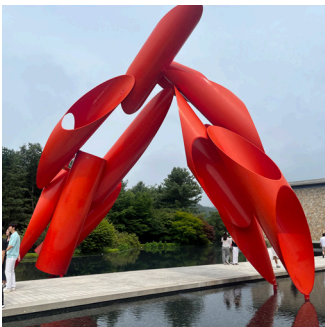
김○준 님



#동해 #여행 #독서

어느 금요일, 퇴근 후 즉흥적으로 동해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푸르른 바다는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걷다가 철길 옆 아담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곳곳에 사장님의 애정 어린 손길이 묻어 있어 유난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주한 나날들을 뒤로한 채 안락한 카페에서 책도 읽고 일기를 쓰다 보니 이런 여유가 얼마만 인지, 새삼 행복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계획에 없는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최○연 님



#휴가 #강원도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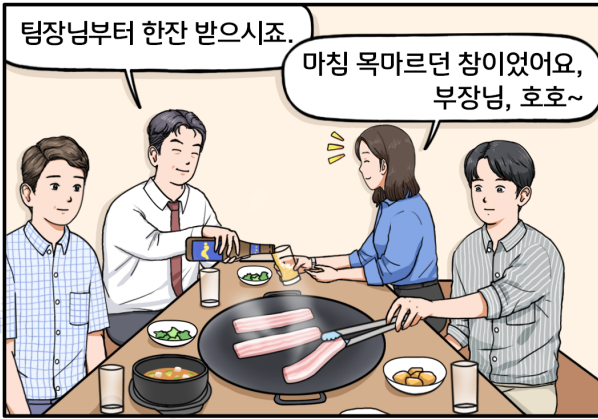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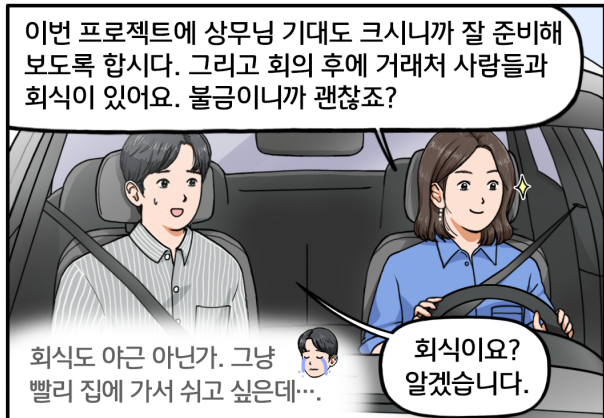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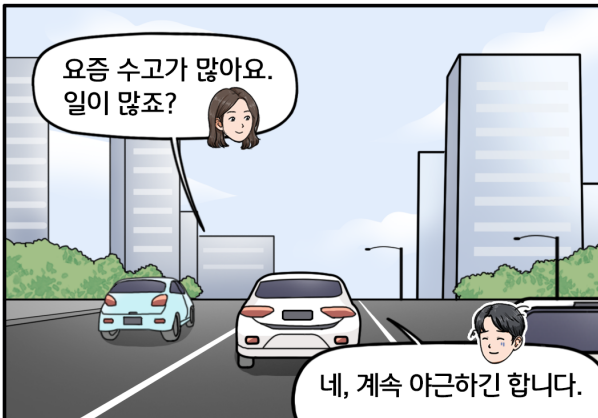
얼마 전, 여름휴가 차 강원도 원주에 있는 뮤지엄산을 찾았습니다. 무더위도 피하고 ‘안도 다다오’의 멋진 작품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더운 주말, 여러분들도 집에만 머물기보다는 가까운 미술관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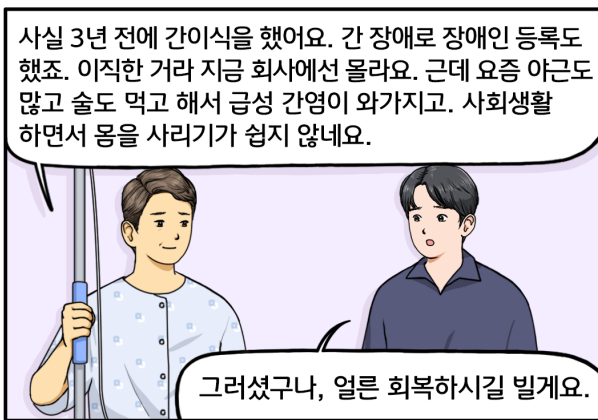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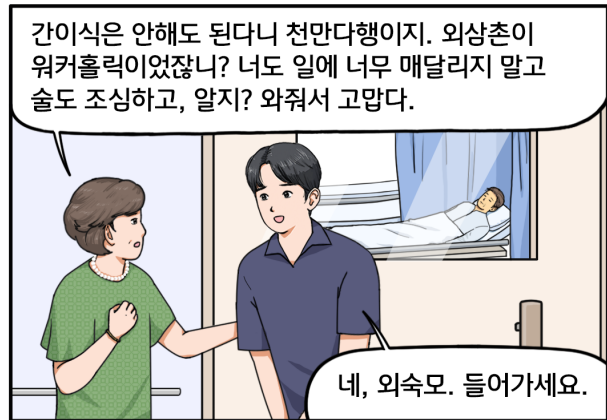
김○준 님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간장애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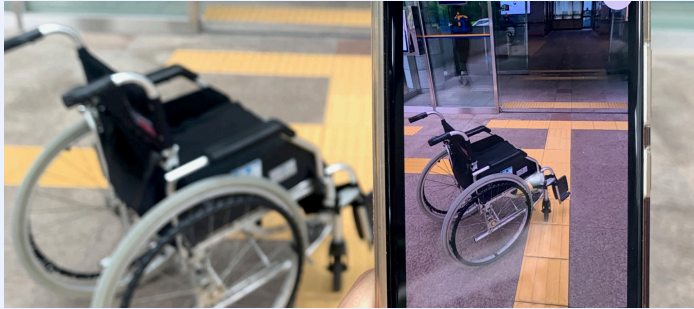
그림 권도연





KEAD 뉴스

시시각각 프로젝트 시즌2, 사진 한 장이 모여 장애인의 눈이 돼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국 27개 공공기관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도보내비게이션 빅데이터 구축 사회공헌활동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각각(各各)의 눈(視)을 모아 장애인의 눈(視)이 되어준다’는 뜻으로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하여 상시로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이다. 프로젝트 참여자는 개인 휴대폰에 전용 앱을 통해 건물 출입구, 경사로 등 편의시설 사진을 수집하고(빅데이터화)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AI)과 장애인 당사자 검증

단을 거쳐 도보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 2022년 실시한 시즌1에는 50개 기관 임직원이 참여해 34,799건의 도보 접근성 빅데이터를 업로드했다. 올해도 정확한 건물 입구와 휠체어 이동 경로 등을 제공하는 무장애 도보내비게이션을 구축해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참여해주신 기관들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풀무원투게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소



(주)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이사, 이동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풀무원투게더’ 개소식이 7월 5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모회사인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 풀무원투게더의 박광순 대표이사과 장애인근로자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풀무원투게더는 풀무원푸드앤컬처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2022년 9월 공단과 설립 협약 후 12월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번 8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목표로 현재까지 23명을 고용했으며, 올해 안에 14명

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풀무원이 앞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라며, 풀무원투게더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는 “공단의 지원으로 장애인과 함께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2022)’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2019)’을 동시 획득했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이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조직·인력·물리적·기술적 4개 영역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 강화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신규 기준으로 재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세계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ISO 27701’은 ISO 27001의 확장 영역이다. 이는 조직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EU GDPR)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등을 충족해야 획득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장애인 정보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blog.naver.com/kead1

장애인 대학 진학률은?

많은 장애인이 정규 고등교육 과정보다 직업훈련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 대학 진학률과 개선 방향에 대해 내꿈내일 기자단 박은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시다.

♡
💬
🔗

N
←
→
🔍
🔄
↶
☰



blog.naver.com/kead1

[당당한 이야기] 저도 안전하게 대피하고 싶어요.

폭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당한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까요?

♡
💬
🔗

N
←
→
🔍
🔄
↶
☰



haha_kead

♡
💬
🔗
⋯
🔖

이런 점은 유의하세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진행 시 알아둬야 할 유의점은 무엇일까요?

🏠
🔍
+
♡
👤



haha_kead

♡
💬
🔗
⋯
🔖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들

아이와 외식을 하다 보면 울고불고 떼쓰기 일쑤. 곤혹스러운 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외식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전문가 필진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
🔍
+
♡
👤